

▶ 전주부채문화관, 벽경 송계일 '선면화' 전

선·면·색 빌어 자연의 이치 표현



벽경 송계일 선생이 그린 산수화와 문인화가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조충익 선자장이 제작한 부채에 잇닿는다.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항미)은 '벽경 송계일, 선면화' 전을 연다. 전시는 전주부채가 지닌 전통문화·예술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송 선생이 2017년 새롭게 작업한 선면화 작품 20점과 음양오행의 동양사상을 조형화한 회화작품을 선보인다.

송 화백은 1990년대부터 음양오행의 동양사상을 대자연의 형상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언어로 조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음양오행 동양사상

조형화한 작품부터

올 한해 새로 작업한

작품들 선보여



낸다. 선과 면, 색의 가장 기본적인 조형언어를 빌어 산과 바다, 계절,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자연의 이치를 표현한다.

이항미 관장은 "한국화의 거목 송계일 선생과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조충익 선자장의 콜라보 전시를

축하하며 우리 고장에서 오롯이 한 걸판을 걸어오신 거목과 명장들의 예술혼을 담은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회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부채문화관 기획전시실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남원대산초등학교에서 '벽경 송계일 선면화전'을 감상할 수 있다. 남원대산초등학교에서는 전시와 더불어 전교생이 함께 하는 부채 그리기 체험 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누에, 레지던스 입주작가 선정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가 '예술+공방 스테디움' 레지던스 입주작가 8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국내 입주작가는 이호익(한국화,중앙대 대학원 석사), 김병관(회화·미디어 아트, 한성대 서양화 전공), 조미형(회화·설치·뉴미디어, 국민대학교 석사수료), 이경수(도자·설치, 슈투트가르트 국립예술조형대학 입체조형 전공), 김미라(입체·설치, 미국 매릴랜드 예술대학 페인팅 전공·서울대학교 서양화 석사), 이혁중(지원순환형 문화기획·설치,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 전공)이다.

'예술+공방 스테디움'은 순수미술과 공예기반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로, 단순한 창작공간 지원을 넘어 전시·비평가 매칭 및 다양한 기획과 지원을 통해 입주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2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입주작가 공모에는 모두 19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7명(장기 3명·단기 4명)의 국내 입주작가가 선정됐다. 해외 입주작가의 경우 이후 초청을 통해 10월부터 3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심사위원으로는 홍경한(미술평론가), 채우승(조각가), 조인호(광주비엔날레재단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작업의 예술성·창작활동 실적·작업계획과 활동방향 등이 주요 선정기준이었다.

홍경한 평론가는 "이번 레지던스 입주작가 공모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학적·형식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 작가들이 다수 참여"했다며 "전통적 범주에 드는 사조이나 회화 작가는 물론 다매체를 활용하는 작가들의 지원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작가들은 오는 25일부터 복합문화지구 누에에 위치한 레지던스 공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창작지원금과 재료비, 프로그램과 숙박시설이 지원된다. /정해은 기자



하지원



박해일



오달수



이일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게스트 공개

배우 하지원·박해일·오달수·이일화 등 초청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개막식 레드카펫 게스트가 공개됐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는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꿈과 영혼'의 일리코 엔에디 감독, '비구니' 특별복원상영에 참석하는 배우 김지미, 국제경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배우 하지원, 한국 단편경쟁 심사위원 정은채,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가 시상하는 시나리오 작가상을 수상하는 배우 박해일, 수애, 오달수, 최근 개봉한

'보통사람'에서 열연을 펼친 장혁 등이 초청됐다.

올해 영화제 각 부문 초청작에 출연한 배우들도 레드카펫을 밟는다.

한국경쟁에 선정된 '샘'의 주연 배우 류산영, '수성못'의 주연 배우 이세영, '해피버스데이'의 서갑숙 등이 개막식 레드카펫에 참석한다.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부문 초청작인 '천화'의 이일화와 양동근을 비롯해, '걸'의 원로 배우 송재호와 허진, '가을 우체국'의 오광록, '돌아온다'의 손수현, '천사는 바이러

스'의 이영아도 초청돼 관객과 만난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기관프로그램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 선정작인 '시인의 사랑'의 양익준, '초행'의 김새벽, 조현철도 레드카펫에 선다.

한편 스테디움이 대거 참가해 자리를 빛내줄 이번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는 27일 프랑스 배우 겸 감독 에두아르 바에르와 박해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막해, 5월 6일까지 전주시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생활문화 물결축제 주민추진위 구성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지원사업으로 '물 따라 걸 따라 생활문화 물결축제 주민추진위원회' 구성원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내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간 교류를 통해 전북형 생활문화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교류프로그램 결과물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도내 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및 생활문화 기획단 6명, 기자단 3명, 예술단은 축제에 함께할 동호회로 최대 50개(공연·전시·체험)팀이다.

한편, '물 따라 걸 따라 생활문화 물결축제'는 도내 14개 시군의 주민 주도형 축제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부래만복~ 부안에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가세요

제54회 The 54th Jeollabukdo Sports Festival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막·축하공연 4월 28일(금) 오후 6시~10시 부안군 스포츠파크 내 특설무대

6시 흥진영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B1A4, 우주소녀 등의 축하 속에 3일간 전북도민체전 일전 돌입



B1A4



남진



홍진영



소찬휘



우주소녀



아이스(I.C.E)



윙크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2017.4.28~4.30 / 3일간

제54회 전라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2017.5.10~5.11 / 2일간